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5권 1호(2015년 6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  
플  
그  
라  
프

#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산학협력연구동 1413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mailto:multiculture@daegu.ac.kr)

##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화수, 이민경, 이희영, 조태린,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소영(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박계영(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서울대), 이민경(대구대), 이희영(대구대), 이수정(덕성여자대학교),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Ratih Pratiwi Anwar(Universitas Gadjah Mada, Yogyakarta)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5년 제5권 1호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5권 1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 논문

---

-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  
이부영·강운선 1
-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변화에 관한 연구 /  
최병두·정유리 20
- 상호문화와 윤리적 직업으로서의 교사: 핀란드 오루 대학교의 상호문화 교사교육으로  
의 관점 / 키요코 우에마츠 58
- 런던의 이스트엔드 예술클러스터가 문화중심도시재생 사업에 주는 함의 /  
손정원 73
- 베트남 이주노동자 귀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고: 현지 진출 기업 지점장들의 요구  
조사를 토대로 / 윤은경 88

## 현장탐방

---

-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한 헌신과 돌봄 /  
대담: 이강애, 인터뷰: 이민경, 정리: 정유리 116

## 서평

---

-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 / 이용승 128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5권 1호를 펴내면서

세계화와 초국적 이주의 증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 나아가 사회적 상호행동의 양식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피동적이고, 원주민들은 보다 능동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국가와 지역사회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매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회공간적 관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반면, 원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지역사회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출현하여 정착하면서 자신들과 일정한 상호행동을 하게 되었음을 수동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이주자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상호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준다.

다문화사회·공간이 이와 같이 서로 낯선 이방인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소극적인 다문화주의를 능가하여 새롭고 보다 적극적인 상호문화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라는 명분으로 문화적 차이만을 인정한 채 실제 서로 다른 문화들 간에 아무런 교류가 없다면, 상호 이해와 상호 협력에 바탕을 둔 사회공간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의 단순한 병렬적 공존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활발한 문화적 교류와 상호행동을 추구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사회공간적 관계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문화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이부영·강운선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식을 유형화하여 그 성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군집분석하여, 이주자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은 대체로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인식을 좀더 세분화하면 '관념적 이주민 수용형', '이주민 수용 거부형', '실천적 이주민 수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공간적 네트워크의 변화에 관해 고찰한 최병두, 정유리의 연구는 이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인간 및 비인간 사물을 포함)의 행위자들 간에 형성되는 사회공간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4시기(즉 의사결정 시기, 한국으로 이동 시기, 한국 도착 직후 시기, 현재 시기)로 구분하는 한편, 공간적 규모를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규모로 구분하여 사회공간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공간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이주자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될수록 한국 생활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를 두고,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자의 한국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함양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 이주민에 대한 원주민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관계 변화를 좀더 긍정적·능동적으로 추동하기 위하여 상호문화주의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요코 우에마츠(Kiyoko Uematsu-Ervasti)의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학의 국제화'와 이를 위한 교사들의 새로운 지식 및 자질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핀란드의 오루 대학을 사례로 상호문화주의적 교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 직·간접적으로 바탕을 둔 연구 외에 두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런던대학교 교수인 손정원의 연구는 런던의 이스트엔드

(East End) 지구의 예술클러스터 조성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런던의 East End 지역은 런던이 현대미술분야에서 뉴욕과 맞먹는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이 연구는 과거 버려진 산업용지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었던 이 장소에 어떻게 예술가들의 작업장이 조성되고 또한 이들과 연계된 소기업들이 입지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문화예술클러스터가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습페터주의 산업입지론을 원용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론화하는 한편, 이러한 문화산업클러스터가 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몇 가지 주요한 함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청년예술가를 자칭하는 Young British Artists가 이 예술클러스터의 성장기에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청년문화의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윤은경의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체류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사례로 계약 만료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발적 귀환자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지점장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적 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심층 면담의 결과, 기업의 지점장들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의 파견 직원들과 단순 노무자들 사이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특히 중간관리자로서 필요한 능력에는 한국어 통/번역 능력,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력,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요구가 높은 중간관리자 양성 과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호의 '현장 & 현장 사람들'에서는 이민경교수와 재한 몽골학교 이강에 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인터뷰에서 아강에 교장은 2005년 컨테이너 교실에 출발한 몽골학교가 현재까지 약 400여명의 학생들을 배출

하는 과정에서 작은 관심들이 모여져서 큰 따뜻함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몽골학교가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인간-네트워크 또는 인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이 몽골학교를 매개기관으로 활용하여 자녀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헌신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보여주고자 한다.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에 관한 이용승교수의 교수의 서평은 논문에 준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과 꼼꼼한 독해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해외 동포이자 최근에는 다시 국내로 이주하고 있는 동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들은 ‘특별한’ 동포이며 ‘초국적’ 실천의 원형을 이룬다. 특히 중국 거주 ‘동포의 귀환’은 동포와 내국인, 그리고 다른 국가에 거주한 동포들 간에 어떤 ‘불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평자는 저자가 동포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인정’과 권리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지만, 성원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이들이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번 호를 편집하면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정착, 귀환 등과 같이 좁은 의미의 다문화사회공간과 관련된 논문 투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또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투고 및 게재가능한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넓은 의미의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예로 인종·민족뿐만 젠더, 성, 연령, 신체조건 등과 관련된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나아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과 이를 규정하는 사회적 구조들에 관한 연구도 포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본 학술지에 현대사회와 새로운 문화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투고를 기대해 본다.

2015년 6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